

정 제  
기 5  
총 차  
회 대  
대 의  
회 원  
사



회장 전동용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배석해주신 회원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년간의 세월을 되돌아 보는 동시에 협회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을 짚어지고 갈 양돈산업역군들  
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자리입니다.

어느 조직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한임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임  
기가 시작되려는 찰나에는 지나간 날을 바탕으로 새로운 날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가는 인간의지와 조직의지가 등장하게 마련입니다.

본인은 오늘 고난과 정열을 같이해온 대의원여러분과 이 자리를 지  
켜보고 있는 전국의 회원 앞에서 지나간 2년간의 시간이 우리에게부  
여해준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함께 회고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9년을 고비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리  
는 양돈업의 호황이라는 시간대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호황의 기초가 양돈산업의 개발력과 철두철미한 경영력에서  
왔는지 아니면 제 3의 영역에서 온 결과인지는 각자에 따라 그 평가  
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라는 조직적 입장에서 바라 보았을 때 지난 3년간  
의 양돈호황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여 이끌어 낸 개발이 윤력의 축적에  
의해서 마련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든 산업이 다 그렇겠지만특  
히 우리나라에서 양돈업은 회원 스스로의 힘이나 협회의 노력 만으로  
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 많은 장벽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해결하려는 노  
력을 계속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1982년 11월 25일 제 2회 전국양돈인 대회에서 우리 협회  
가 해야 할 기능과 사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 모든 양돈인들의 노력과 기술을 협동화하여 전국 양돈인들  
의 의지를 집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양돈 생산자 개개인의 의  
사만으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구조적 개선을 가져올 수 없  
다는 명백한 현실을 집약된 의지로 대처하기 위한 방향제시였고, 이로  
인해 협회는 일선 양돈인들의 의사집결에 총력을 기울여 1983년 12월  
31일 현재 본회를 중심으로 9개도 협의회 산하에 53개 지부를 설치하  
였고, 이러한 양돈인 조직을 이끌어 가는 임원급 지도자는 전국적으로  
582명에 이르며, 임원들의 정책을 수행해 가는 훈련된 협회기간요원

에너지로 만들어 계층별 거리감 해소·산학운동을 전개해야  
첫째 모든 양돈인의 의지를 집결. 둘째 우리의 열망을 양돈산업의 발전적

85명이 우리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 온 생산자 조직의 확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생산자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산업을 많은 회원들의 의지로 슬기롭게 대처해 가기 위한 기초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연발생적인 우리들의 열망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모든 열망을 양돈산업의 발전적 에너지로 만들어 계층별 거리감을 해소하고 양돈산업을 산학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과 회원의 확산은 회원 개개인의 뜻이 한 곳으로 모여짐을 의미하고 이렇게 모여진 거대한 뜻은 양돈산업의 제반문제를 타인에게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생존열망으로 승화되어 가야한다는 생산자의 기초적 논리입니다. 안정된 양돈경영 안정된 양돈산업은 그 구성원의 집약된 에너지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는 확신을 협회로 하여금 양돈산업의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추진케하여 어느 생산자 단체도 해내지 못했던 기간요원 연수훈련, 전국 순회 쎄미나 등 '82년 하반기부터' 83년도 한 해 동안에 연 34회의 지방순회를 통해 5,533명이 참여하는 양돈산업 경영안정 쎄미나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본 협회에 “양돈경영 진단그룹”과 “양돈산업 마케팅 전담그룹”을 양성하여 양돈경영 전문화시대를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안한 것인 바 안으로나 밖으로나 기술 혁신을 불러 일으켜 좋은 품질의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서비스함은 물론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생산비 절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자체에서 벗어나 우리 산물의 유통경로를 깊게 파악하여 이의 구조적 개선에 까지 선의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협회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우선 종돈능력검정소건립에 힘을 기울여 정부보조와 자체자금으로 9,000여 평의 대지위에 그 공정의 75%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위에서 설명드린 협회의 중점 기능을 다시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양돈산업의 경영안정 이룩이라는 보다 확실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선택을 말함이며, 선택된 경로를 협회 조직의 정책으로 이끌어 새로 탄생되는 임원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격심한 변화 앞에 피해가거나 거부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여 보다 높은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양돈경영 전문화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전 담 그룹”을 양성하여 양돈경영 전문화 시대 개척 해야  
세째, 본회에 “양돈경영진단그룹”과 “양돈산업마케팅”

대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지난 임기 중 다하지 못한 두 가지의 일을 새 임기의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이월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조직을 확장하고 회원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된 양돈업계 층간의 거리감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과, 또 시간이 갈수록 조직의 열망과 욕구가 정책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으로 분류되어 나타나는 바 정책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수렴되어 힘 닿는 데 까지 추진하였으나 회원들의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활동 욕구는 납득할 만큼 그리고 만족할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을 못시킨 점 등입니다.

그러나 오늘 협회 제5차 임기를 여는 뜻있는 자리에서 지난 임기 중에 부여되었던 사명과 역할 그리고 다음 임기에 부여될 그런 것들을 기술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 연결해 감으로서 앞 임기의 과제는 다음 임기의 지도자들에 의해 홀륭히 해결되고 정착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협회 제5차 연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최대 임무는 다시 한번 우리 산업에 생존력을 부여하고 우리 산업에 기대를 거는 모든 연관계층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봉사 함으로서 협회가 곧 힘 있고 진실된 사회적 자원임을 확인하는 일 일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양돈산업의 본질을 재 인식하여 다시 창조하고 계층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전력을 질주해 가는데 온 역량을 모은다면 오늘의 이 모임을 양돈산업의 역사 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것이라 믿으며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임기 중 전력을 다해 협력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84년 1월 25일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 동 용

양돈인의의지모아 양돈사업 경영안정